

충북학누리

AUTUMN | 2025 VOL. 20

제천시 월악산



목차

AUTUMN 2025
Vol.20



- 5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산책 길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 김호진
- 15 충북의 방언
 정겨운 충북 방언과 그 특징 | 박경래
- 33 충북의 판소리
 판소리 중고제와 충북의 명창 | 서일도
- 39 낭독극
 그 집, 희망가 | 심수영
- 61 충북학연구소 소식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총괄 임기현
기획·편집 정민, 안현진
통권 20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5. 9. 30.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01.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산책 길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김호진(충북대학교 강사)

광복 80주년, 8월 15일

올해 8월 15일은 80번째 광복절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곳곳에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고, 그 의미를 알리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었다. 한편에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를 사는 한국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 8월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충북의 독립운동가들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3편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0년 전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에서 다루지 못한 애국장·애족장 훈격의 독립유공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025년 8월 현재, 충북 출신의 애국장·애족장 훈격 독립유공자는 총 371명이다. 그 중 애국장은 134명, 애족장은 237명이다.

충북 출신 애국장·애족장 훈격 독립유공자

훈격	애국장	애족장	합계
인원(명)	134	237	371

이들은 3·1운동, 계몽운동, 광복군, 국내항일, 문화운동, 의병, 의열투쟁, 임시정부, 학생운동 및 노령·만주·미주·인도네시아·일본·중국 방면 등의 운동계열로 구분된다. 국가보훈부에서 부여한 운동계열 중 독립운동 지원과 구주 방면만 없다.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광범위한 방면에서 활동했음이 미루어

짐작된다.

충북 출신 애국장·애족장 훈격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

	애국장	애족장	합계
3·1운동	25	86	111
계몽운동	1	4	5
광복군	2	11	13
국내항일	10	32	42
노령방면	1	0	1
만주방면	10	11	21
문화운동	3	1	4
미주방면	1	3	4
의병	66	70	136
의열투쟁	3	2	5
인도네시아방면	1	0	1
일본방면	0	4	4
임시정부	4	4	8
중국방면	4	5	9
학생운동	3	4	7
전체	134	237	371

한편, 여중선·이덕현·이만영·조병옥 등 충북 출신 4명이 2025년에 애족장 훈격으로 독립유공자가 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애국장 및 애족장 서훈의 독립유공자가 나오고 있다. 기쁜 소식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가 유공자로 서훈되길 바란다.

하지만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371명의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대부분은 그 생애와 독립운동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만 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기념사업회 혹은 문중 차원에서 선양되고 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 ‘자료 부족’으로 그들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숙제를 남겨두는 것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01. 충북의 독립운동가 '다시 보기'



김제환



김제환의 위패를 모신 이정사



신건식 가족 (왼쪽부터 오건해·신순호·신건식)



유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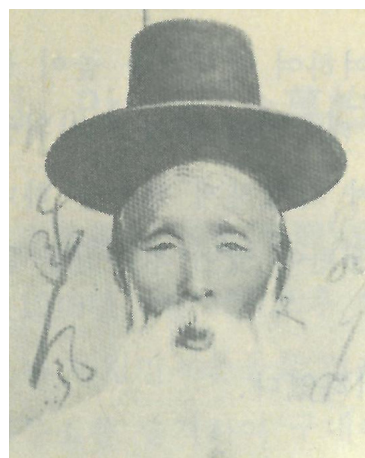
임수명



정원택



조명희



조동식

충북 출신의 애국장·애족장 훈격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충북 각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학계에서 주목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를 이어 독립운동을 했던 곽준희(郭俊熙)·곽중선(郭重善) 부자, 일제의 식민지배에 죽음으로 저항한 김제환(金濟煥), 신건식(申健植)의 부인으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챙긴 오건해(吳健海), 신건식과 오건해의 딸로 광복군에 여군으로 참여한 신순호(申順浩), 신팔균(申八均)의 부인으로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결한 임수명(任壽命), 정순만(鄭淳萬)의 아들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정양필(鄭良弼)이 있다. 또한,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괴산 오랑강에 투신 자결한 안숙(安瀟),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으로 구한말 의병전쟁에 뛰어든 원용팔(元容八), 아나키즘에 정통한 이론가이자 농학자였던 유자명(柳子明),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의 저자로 유명한 정원택(鄭元澤),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명희(趙明熙), 청주 망덕산에서 봉화만세시위를 주도한 조동식(趙東植) 등이다.

한편, 곽준희의 아들이자 곽중선의 형은 곽중규(郭重奎)이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여 독립장에 오른 독립유공자이다. 김제환의 동생 김성환(金成煥)도 대통령표창에 오른 독립유공자이다. 그는 형 김제환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부하였다. 오건해의 남편이자 신순호의 아버지인 신건식은 특히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이다. 그 역시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에 투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독립장의 훈격을 받았다. 신건식은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부인 오건해, 딸 신순호뿐만 아니라 형 신규식(申圭植), 조카 신명호(申明浩) 및 신형호도 독립운동가이다. 이 가운데 신형호는 1914년 미국 네브라스카 헤이스팅스 소년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등의 활동으로 애족장의 훈격을 받아 특기할 만하다.

임수명의 남편 신팔균은 동천이라는 호를 사용해 김경천(金擎天)·지청천(池青天)과 함께 ‘남만주의 삼천’으로 유명하다. 그는 신흥무관학교 교관, 대한통의부 군사위원장 등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끈 장군이였다. 만주 외에도 베이징 등 중국 관내에서 펼친 독립운동이 인정되어 독립장 훈격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정양필의 아버지 정순만은 박용만(朴容萬)·이승만(李承晩)과 함께 독립운동계 ‘삼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향인 청주 옥산에서 덕신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평생의 동지 이상설(李相高)이 설립한 ‘북간도 민족교육의 요람’ 서전서숙(瑞甸書塾)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교육구국운동에 전개하였다. 그도 신팔균처럼 독립장 훈격의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뤄져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필자는 기왕의 연구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한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주 출신의 만주 독립군 최명수(崔明洙)가 바로 이번 편에서 살펴볼 인물이다.

만주의 독립군, 최명수

최명수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충북인이다. 1881년 12월 22일 태어나 해방 이후인 1951년 11월 18일 서거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때는 남진호(南鎭浩)·최중산(崔中山) 등의 이명(異名)을 사용하였다.



최명수

국가보훈부 공적조서에 따르면, 그의 본적은 충북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33번지인데, 현재는 청주시 내수읍 도원리 133번지이다. 일제가 1913년 제작한 지적도에 따르면, 당시 최태한(崔泰漢)이 도원리 133~135번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직은 추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최태한은 최명수의 친척으로 생각된다.

만주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참의부(參議府) 등의 단체에 참여했고, 상하이에서 『독립신문(獨立新聞)』 사장을 지내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승학(金承學)은 해방 이후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를 발간하고, 최명수에 대해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도만(渡滿)하여 이시영(李始榮)·김동삼(金東三) 등과 같이 경학사(耕學社)와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했다고 서술하였다. 김승학의 기록에 따르면, 최명수는 1910년 8월 경술국치 이후 망명했고, 1911년경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학사에



1913년 도원리 일대 지적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즉, 일제가 ‘도원리 133번지’를 조사했던 1913년에는 최명수가 고향을 떠나 만주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원리 133번지’에 있던 집을 친척인 최태한에게 팔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도원리 133번지에는 집이나 건축물이 없고 아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터만 남아 있다.



도원리 133번지의 현재 모습

독립기념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따르면, 최명수는 어릴 때 한학을 수학했는데, 이후 기독교 신자가 되어 20세가 되던 1900년에 전도사가 되었다. 이때, 그가 전도사로 활동한 곳은 충남 천안의 목천(木川)에 있던 교회라고 한다. 앞서 밝혔듯이, 최명수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 땅 중에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인접했던 서간도로 망명했고, 이회영(李會榮)·이상룡(李相龍) 등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만든 경학사에 참여하였다. 이회영·이상룡 등 경학사를 탄생시킨 서간도의 독립운동가들은 경학사와 함께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로써 훗날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라는 ‘독립군양성소’가 태동하였다.

최명수가 경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신흥강습소 운영에는 간여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경학사의 뒤를 이어 탄생한 부민단(扶民團)에도 참여했던 것을 보면 경학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김승학의 기록에 따르면, 최명수는 경학사뿐만 아니라 부민단 조직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그가 부민단에서 단총(團總)이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파악하였다. 단총은 부민단이 서간도의 한인사회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둔 직책으로 짐작된다. 부민단에는 민사(民事)를 관장하고

부민단 전체를 관리하는 단총리(團總理)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일제가 단총리를 단총으로 잘못 기록했던 것 같다.

또한, 최명수는 부민단 단총을 맡으면서 오늘날의 경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최명수가 부민단에 이어 성립된 한족회(韓族會)에서 경찰 역할인 검사감(檢査監) 또는 검찰사장(檢察司長)에 임명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흥학교 학생들이 농사짓는 광경

한족회는 1919년 3월 13일 서간도의 유하현 삼원포에서 한인 자치기관으로 성립되었다. 한족회는 부민단과 자신계·교육회 등 서간도에서 한인 자치 실현을 지향한 단체의 통합체였다. 이에 학교 설립, 신문 발행 등 한인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독립전쟁 준비'를 위해 군정부를 조직하고 신흥학교(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시켰다. 군정부는 1919년 11월 한족회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운동단체가 되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발전하였다. 서로군정서는 유인석의 문인들이 중심이 된 대한독립단과 함께 1920년대 초반 서간도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쌍두마차였다. 최명수는 한족회에서 검사감 또는 검찰사장으로 활동했는데, 서로군정서가 탄생한 뒤에는 중앙의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



이상룡

1920년 5월, 서간도에 일제의 검은 손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1920년 5~8월 사이 친일적 성향의 중국 관헌과 함께 중·일합동수색대를 편성해 서간도의 독립군을 붙잡고 사살하였다. 이 무렵 서로군정서 본부는 북간도 방면의 액목현으로 이동하였다. 1920년 5월경 유하현을 떠나 안도현으로 이동했고, 같은 해 8월에 액목현으로 이동하였다. 최명수는 이상룡과 함께 유하현을 떠나 화전현에 도착하여 “각지를 돌며 사람들을 깨우쳐서 모이게 하는” 등 독립군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독립군 탄압은 1920년 10월부터 시작된 경신참변(庚申慘變)으로 이어졌다. 1920년 5~8월 발생한

중·일합동수색은 서간도에 국한되었는데, 경신참변은 북간도까지 포함한 만주 전체에서 자행되었다. 독립군은 물론, 일반 한인들까지 처참히 학살되는 등 야만적 행태가 만연하던 시기였다. 1920년 말 만주 땅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1921년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만주 각지에 흩어져 은신하고 있던 독립군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만주를 되찾기 위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21년 12월경에는 만주의 한인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일조직을 몰아내며 ‘독립운동 근거지’를 되찾았다.

서간도의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는 1922년 8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라는 통합체를 탄생시켰다.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가 통합에 참여하기를 주창하는 대요(大要)를 발표한 결과,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외에도 서간도에서 독립운동 근거지를 되찾는 데 힘쓴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남만한족통일기관(南滿韓族統一機關)’인 대한통의부가 성립될 수 있었다.

최명수는 1922년 8월 대한통의부가 성립되었을 때 검무국장에 임명되었다. 검무국장이 지휘하는 검무국은 행정·위생·사법·경찰 및 검거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즉, 검무국은 오늘날 경찰 업무를 담당한 조직이었고, 최명수가 맡은 검무국장은 오늘날 경찰청장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대한통의부에서 검무국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데는 한족회 시절부터 검무감·검찰사장 등 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밑바탕에 있었다.

그는 1924년 11월 서로군정서·대한통의부 등 7개 단체가 통합하여 정의부가 성립될 때에도 이에 참여하였다. 정의부에 참여할 때는 일전에 참여했던 서로군정서나 대한통의부 소속이 아니라 노동친목회(勞動親睦會)와 길림주민회(吉林住民會)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1924년 7월 열린 회의에는 노동친목회 대표로, 10월 회의에는 길림주민회 대표로 참여하여 그해 11월 정의부가 탄생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래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에서 지도부였던 그가 노동친목회와 길림주민회 대표로 정의부 성립에 참여한 것은 이색적인 부분이다.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통합에 참여했음을 선전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중복 가입 또는 겹직의 흔적일 수도 있다.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각종 ‘회(會)’에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만주에서 한인사회는 독립운동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친목회·길림주민회 등은 모두 경제적 상호부조를 지향한 단체로 생각된다. 만주에 사는 한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직된 단체라는 것이다. 한인들의 생활 안정은 만주지역 한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계에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하는 한편, 한인사회 관련 단체에도 중복 가입하였다. 최명수도 그러한 경우였다.

최명수는 정의부의 성립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자치분과위원에 선정되었다. 1924년 10월 열린 회의에서 대한통의부 대표 김동삼이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자치·군사·교육·재정·생계로 분과를 만들고 분과위원을 선정했는데, 최명수는 이진산(李震山)·맹철호(孟喆鎬)와 함께 자치분과위원에 선정되었다. 정의부가 성립된 후에는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 때처럼 검무감을 맡았다. 정의부가 성립되었을 때 관할하고 있던 한인사회는 대략 34,880호에 이르렀다. 최명수는 정의부에서도 검무감에 임명되며 한인사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민족 유일당운동의 영향으로 1927년부터 만주에서도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28년 9월 정의부·참의부·신민부가 통합하는 ‘삼부통합(三府統合)’이 논의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3부 통합은 통합 방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단체분위조직론’을 주장한 ‘협의회’와 ‘개인분위조직론’을 주장한 ‘축성회’로 분리되었다. 최명수는 김동삼·지청천(池青天) 등 과거 서로군정서 동지들과 함께 ‘개인분위조직론’을 주장한 축성회를 지지하였다. 축성회는 1928년 12월 혁신의회(革新議會)로 탈바꿈하였고,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과 한국독립군(韓國獨立軍)을 통해 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을 이끌었다.

최명수와 내수읍

이후 최명수는 중국 관내인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1932년 만주괴뢰국 수립 등 만주의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독립군 등 만주의 독립군은 중국의 항일의용군과 군사적 연대로 일제를 몰아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지청천·홍진(洪震)·황학수(黃學秀) 등이 중국 관내로 이동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는데, 최명수도 이때 중국 관내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는 상하이에 머물다가 1934년 11월 일본영사관 경찰서에 체포되었고, 1935년 2월 국내로 압송되어 그해 6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황학수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한국독립당 및 정부기관인 감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회장 이시영(李始榮)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는 조직부 부장을 맡았고, 한국독립당에서는 감찰위원장 황학수를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감찰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임명되어 위원장 정인보(鄭寅普)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1951년 11월 광복을 되찾은 조국(祖國)에서 눈을 감았다.

필자는 현재 청주시 내수읍에 살고 있다.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집에 있으면서 글을 쓰거나 부탁받은 일을 한다. 요즘은 너무 더워 자제하고 있지만, 점심 먹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수에 살면서 나름대로 산책 코스를 만들고 종종 걸었다. 그런데 최근에 산책 코스 중간에 최명수의 본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햇빛을 가려줄 모자를 황급히 쓰고 최명수의 본적지로 향했다. 후손이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갔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후손은 커녕 집도 없고 터만 남아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최명수를 아는 사람이 그 마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시작이다’라고 다짐을 하였다. 앞으로 직계 또는 방계 후손을 찾고 족보도 확인하여 최명수의 생애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 나가고 싶다. 언젠가는 최명수라는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02. 충북의 방언

정겨운 충북 방언과 그 특징

박경래(세명대학교 명예교수)

1. 글을 시작하면서

이번 글은 “충북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충북 방언”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어지는 세 번째 연재물이다. 첫 번째 글에서는 충북 방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충북 방언에는 충북 사람들의 역사와 충북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 그리고 충북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충북 방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연재물에서는 충북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언어에 반영된 결과가 충북 방언이므로 충북 방언의 분화상을 몇몇 어휘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지어 기술하였다. 아울러 충북 방언을 국어 방언 전체와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충북 방언이 대방언권 속에서 가지는 분포상의 위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방언 지도를 통해 충북 방언을 북부 방언권과 중북 방언권 그리고 남부 방언권으로 하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충북 북부 방언권은 강원도 방언의 영향을 받았고, 중북 중부 방언권은 경기도와 충남 방언의 영향을 받았으며, 남부 방언권은 경북과 충남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충북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충북 방언에 대한 세 번째 연재물의 기술 목적이자 내용이다.

2. 충북 방언의 특징

충북 방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화자(話者)마다 거주지역은 물론이고 성장 과정이나 연령, 세대, 학력, 직업 등 매우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다양하고 복잡함 속에서 다수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인상적인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북 방언은 서울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거나 다른 방언에 비해 좀 느린 편이라는 등 추상적인 설명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충북 방언은 국어 방언의 하위 방언으로서 다른 방언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과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말은 의미를 구분해 주는 말소리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와 관련되는 소리인 자음과 모음 그리고 그 소리의 연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리의 연쇄는 흔히 어휘로 나타나고 어휘의 연쇄는 구나 절 또는 문장으로 나타난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의미를 구분해 주는 말소리인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의미를 구분해 주는 말소리의 장단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말소리의 연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말소리의 연쇄체인 어휘 그리고 어휘의 연쇄체인 문장이 보이는 문법적인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1. 음운

충북 방언에서 음운이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장(音長)을 말한다. 충북 방언의 자음은 서울말(표준어)와 마찬가지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ㄴ, ㅅ, ㅆ, ㅈ, ㅉ/ 등 19개가 쓰이지만 /ㄹ/이나 /ㅇ/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는다거나 /ㄷ, ㅅ, ㅆ, ㅈ/이 음절 말이나 단어의 마지막에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외국어 교육과 외래어의 영향으로 고령층을 제외하면 ‘라면, 라이터, 라디오, 라스트, 라인, 리듬, 리본, 리노베이션, 리뉴얼, 링, 레일, 라이벌’ 등에서 보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을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준어와 다른 모습으로 쓰이는 자음과 모음이 충북 방언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되지만 이 글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국어에서 형태소 경계에서 앞에 오는 형태소의 마지막 자음과 뒤에 오는 형태소의 첫 자음이 비음일 때 뒤에 있는 자음의 영향으로 앞의 자음이 비음으로 동화(同化)되는 현상이 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뒤에 오는 자음이 비음이면 앞에 오는 자음은 필수적으로 비음으로 동화된다.

웃는다 → 운는다.

놓는다 → 논는다.

쫓는다 → 쫓는다.

꽃만 → 꼰만/꼼만.

빛만 → 빈만/빔만.

 $\text{절만} \rightarrow \text{전만/점만.}$

책만 → 책만.

알만 → 암만.

부얼만 → 부엉만

위와 같은 비음화 현상은 충북 방언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 비음화와 관련하여 ‘밟는다, 읽는다, 굶는다, 엮는다, 뚫는다¹⁾’와 같이 어간말음으로 ㄹ을 가진 자음군(子音群) ‘래, 리’이 올 때는 지역과 연령층에 따라 발음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준어	충북의 고령층 방언	충북의 젊은층 방언
읽는다	잉는다 (←익는다←읽는다)	일른다 (←일는다←읽는다)
굶는다	금/굉는다 (←극/꼭는다←굶/굶는다)	글/꼴른다 (←글/꼴는다←굶/굶는다)
엮는다	엷는다 (←억는다←엮는다)	얼른다 (←얼는다←엮는다)
밟는다	밤:는다 (←밥:는다←밟:는다)	발른다 (←발는다←밟는다)
뚫는다	뚱는다 (←뚱는다←뚫는다)	똥/똥른다 (←똥/똥는다←뚫/뚫는다)
굶다	국다([국따]) (←굶다)	굴다([굴따]) (←굶다)
늪다	늑다([늑따]) (←늪다)	늘다([늘따]) (←늪다)
얹다	압다([압따])~알다([알따]) (←얹다)	알다([알따]) (←얹다)
밟다	밥다([밥따]) (←밟다)	발다([발따]) (←밟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인접한 지역인 ‘단양, 제천, 괴산, 보은, 영동’의 동부 지역에서는 노년층에서도 젊은층에서 발음하는 ‘일른다(읽는다)’류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 서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밤는다(밟는다)’류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ㄱ’이나 ‘ㅂ’을 남기는 노년층의 발음이 ‘ㄹ’을 남기는 젊은층의 발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단어 내에서 모음 ‘ㅣ’나 ‘ㅏ, ㅑ, ㅓ, ㅕ’ 앞에 자음 ‘ㄱ, ㅋ’이나 ‘ㅎ’이 오면 각각 ‘ㅈ, ㅊ’과 ‘ㅅ’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고 하는데 충북 방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령의 노년층에서는 쉽게 관찰된다. 즉 고령층의 화자들은 표준어 ‘길, 기름, 저드랑, 겹웃, 견디다, 꺾다, 키(箕)’와 ‘힘, 힘줄, 혀, 헛바닥, 흥(凶)보다’ 등에 대하여 각각 ‘질, 지름, 저드랑, 겹웃, 전디다, 꺾다, 치’와 ‘심, 심줄, 세, 셋바닥, 숭보다’ 같이 ‘ㄱ’은 ‘ㅈ’으로, ‘ㅎ’은 ‘ㅅ’으로 실현하는 경향이 강한데 젊은층에서는 표준어 교육과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다.

충북 방언에서 사용되는 단모음(單母音)은 화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최소 7개(이, 애, 으, 어, 아, 우, 오)에서 최대 10개(이, 예, 애, 위, 외, 으, 어, 아, 우, 오)가 사용된다. 요즈음 젊은층은 대부분 7모음 체계를

1) 충북 방언에서 ‘뚫는다’는 표준어의 ‘뚫는다’에 대응한다.

가지고 있고 고령층에서만 10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차이는 ‘위([ü], 외[ö])’를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구별하느냐와 ‘에([e])’와 ‘애([ɛ])’를 발음하고 구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귀, 쥐, 뒤’와 ‘죄, 쇠, 외’를 각각 ‘귀([kü]), 쥐([cü]), 뒤([tü])’와 ‘죄([cö]), 쇠([sö]), 외([ö])’로 발음하고 ‘게’와 ‘개’, ‘때’와 ‘때’를 각각 ‘게([ke])’와 ‘개([kɛ]), ‘때([t'e])’와 ‘때([t'ɛ])’로 구별하여 발음하고 인식한다면 10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귀, 쥐, 뒤’를 ‘귀([kwi]), 쥐([cwi]), 뒤([twi])’로 발음하고 ‘죄, 쇠, 외’를 ‘죄([cwE]), 쇠([swE]), 외([wE])’나 ‘제/재, 세/새, 예/애’로 발음하고, ‘게’와 ‘개’, ‘때’와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둘 다 ‘개([kE])’와 ‘때([t'E])’로 발음한다면 7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10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과 7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화하면 의사소통에서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10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게 잡으러 가자’고 하면 ‘게(蟹)’로 알아듣고 ‘개 잡으러 가자’고 하면 ‘개(犬)’로 알아듣지만 7모음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게(蟹)’인지 ‘개(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말할 때 ‘외국’과 ‘왜국’, ‘괴’와 ‘꽤’, ‘쇠’와 ‘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어 사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국어에서 발음의 길고 짧음(장단(長短) 또는 음장(音長)이라고도 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충북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표준발음에서도 ‘밤, 말, 일, 발, 벌, 눈’ 등을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고령층 충북 방언 화자들도 이것을 구별하여 발음하고 구별하여 알아듣지만 젊은층 충북 방언 화자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을 걱정하기도 한다. 다음의 표를 보면 발음의 길고 짧음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다.

표준어 대응	충북 방언 고령층	충북 방언 젊은층
밤:(粟) - 밤(夜)	밤:(粟) - 밤(夜)	밤(粟) - 밤(夜)
말:(言) - 말(馬, 斗)	말:(言) - 말(馬, 斗)	말(言) - 말(馬, 斗)
일:(事) - 일(-)	일:(事) - 일(-)	일(事) - 일(-)
발:(簾) - 발(足)	발:(簾) - 발(足)	발(簾) - 발(足)
벌:(蜂) - 벌(罰)	벌:(蜂) - 벌(罰)	벌(蜂) - 벌(罰)
눈:(雪) - 눈(目)	눈:(雪) - 눈(目)	눈(雪) - 눈(目)
되:다(硬) - 되다(化)	되:지(硬) - 되지(化)	돼다(硬) - 돼다(化)
안:다(知) - 안다(抱)	안:다(知) - 안다(抱)	안다(知) - 안다(抱)

충북 방언의 젊은층 화자들은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밤에 놀러 다닌다, 말을 타고 간다, 일하다가 왔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벌에 쏘였다, 눈이 부었다’와 같이 문맥으로 구별하거나 ‘깜깜한 밤, 먹는밤; 입으로 하는 말, 사람이 타는 말; 밭에서 하는 일, 일이삼사 할 때 일; 문에 치는 발, 사람 발; 날아다니는 벌, 벌받는 벌; 하늘에서 오는 눈, 사람 눈’과 같이 설명을 붙여 구별하기는 하지만 언어 경제적으로 볼 때 불리하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문맹이 많던 시절에는 발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나 지금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음이 덜 중요해진 요인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북 방언에서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말소리의 길이는 다른 단어에도 영향을 주어 표준어와 다른 모습의 충북 방언형을 보여주기도 한다. 주로 첫째음절이 긴 소리(長音)일 때 관찰되는데 모음 ‘에’가 ‘이’로 발음되거나 ‘어’가 ‘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에’가 ‘이’로 발음되는 현상은 특히 경상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충북에서는 경상도와 인접한 단양, 제천, 영동과 괴산, 보은의 동부 지역에서 폭넓게 관찰된다. 다음의 예들이 첫째 음절이 장음일 때 모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준어	충북 노년층 방언형	표준어	충북 노년층 방언형
제:사(祭祀)	지:사(←제:사)	베:개(枕)	비:개(←베개)
셋:(三)	싯:(←셋:)	면:장(面長)	민:장(←멘:장←면:장)
메:다	민:다(←멘:다)	면:경(面鏡)	민:경(←멘:경←면:경)
세:다(算)	신:다(←센:다)	병:신(病身)	빙:신(←뱅:신←병:신)
데:다	딘:다(←덴:다)	변:하다(變-)	빈:하다(←벤:하다←변:하다)
계:시다(存)	기:신다(←계:신다←계:신다)	편:하다(便-)	핀:하다(←펜:하다←편:하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표준어 교육과 메스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음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충북 방언에서 첫째 음절의 ‘어’가 길게 발음될 경우 ‘으’로 발음되는 예들이 있는데 이와 평행하여 이중모음 ‘여’도 ‘으’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충북 방언에서 ‘어’가 ‘으’로 발음하는 예들은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으나 충북 방언에서 ‘여’를 ‘으’로 발음하는 젊은층 화자들은 거의 없다.

표준어	충북 방언 노년층	표준어	충북 방언 노년층
거:지	그:지	없:다	읻:다/읻:다
어:른	으:른	얻:는다	을:는다
영:덩이	응:덩이	거:북하다	그:북하다

표준어	충북 방언 노년층	표준어	충북 방언 노년층
영:동(永同)	응:동	연:습(練習)	을:습
연:설(演說)	을:설	연:적(硯滴)	을:적
여:부(與否)	으:부	영:생(永生)	응:생
여:치(蟹)	으:치	쓸개/열:(膽)	을:
열:쇠(鎖匙)	을:쇠/을:때	염:치(廉恥)	을:치

또 하나 언급할 것은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충북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 자주 관찰할 수 있었던 현상으로 움라우트가 있다. 이 움라우트는 뒤에 오는 모음 ‘이’나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앞에 오는 후설모음 ‘으, 어, 아, 우, 오’가 각각에 대응하는 전설모음 ‘이, 에, 아, 애, 위, 외’로 바뀌는 현상이다. 충북 방언의 움라우트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형태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형태소 내에서 일어나는 예들은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예들이다. 이런 예들은 단어로 굳어져 지금까지 쓰이는 예들도 있고 교육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표준어형으로 바뀐 예들도 있다.

아>애, 아→애	어>에, 어→에	으>이, 으→이	오>외, 오→외	우>위, 우→위
애비(<아버>)	에미(<어미>)	다디미(<다듬이>)	괴기(<고기>)	귀경(<구경>)
싸래기(<싸라기>)	지렁이(<지렁이>)	당게(<등겨>)	쇠인다(<속인다>)	귀미(<구미>)
지팽이(<지팡이>)	멕인다(<먹인다>)	뜯긴다(<뜯긴다>)	왕긴다(<웁긴다>)	죽인다(<죽인다>)
맬긴다(<말긴다>)				

위에 보인 움라우트형들은 대부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아주 약빠른 사람’을 뜻하는 ‘각쟁이’와 같은 예들은 명확하게 어원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단어의 경우,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11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밤나무나 도토리 등의 열매를 싸고 있는

받침'의 뜻으로 쓰이는 '깍정어'는 움라우트형인 '깍쟁어'는 비표준어다.

충북 방언에서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의 대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인 다음과 같은 예들은 일부 고령층 화자를 제외하면 지금은 듣기 어렵게 되었다. 언어가 변화는 모습을 현 시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애	어→에	으→이	우→위	오→외
뱌이(밥-이)	뱌이(법-이)	소김이(소금-이)	꺽이(국-이)	뭍이(몸-이)
깡이(강-이)	젼이(점-이)		쥌이(죽-이)	뵙이(복-이)
사렘이(사람-이)	생이(성-이)		넙이(늪-이)	뵙이(목-이)

위의 예들은 주격조사인 형태소 '이'가 앞에 오는 형태소(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후설모음 '아, 어, 으, 우, 오'일 때 이들 후설 모음을 각각 전설모음 '애, 에, 이, 위, 외'로 바꾸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들 단어 뒤에 '이'가 아닌 다른 조사 '을/를, 과, 도, 에서' 등이 오면 본래대로 '밥, 강, 사람, 법, 점, 성, 소금, 국, 죽, 몸, 복, 목' 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지금은 들어보기 어려운 발음이라는 점에서 요즈음 젊은이들이 보면 '설마 저렇게 말했을까?' 하고 의심을 기질 법한 예들이다. 한 세대 동안에 그만큼 충북 방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이다.

2.2. 문법

충북 방언의 문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방언의 문법 연구에 비해 영성한 편이다. 그것은 충북 방언이 중앙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충북 방언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예를 들면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거나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 주로 음성모음 계열의 조사나 어미가 사용된다는 것 등이다. 즉 체언에 연결되는 조사로는 특수조사와 목적격조사 및 복수 접미사 그리고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등이 있다. 체언에 연결되는 특수 조사로는 '-다, -ㄴ, -은/언, -는/넌'이 쓰이고, 목적격조사로는 '-ㄹ, -을/얼, -를/렐'이 쓰인다. 복수 접미사로는 '-들/덜'이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는 '-(으)로/루'가 쓰인다. 충북 방언 노년층에서는 이들 조사나 접미사 가운데 음성모음 계열인 '-언, 넌, -얼, -렐, -루'가 더 활발하게 쓰이는 반면 젊은층에서는 '-은, -는, -을, -를, -들, -(으)로' 등이 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연결어미의 경우에도 '먹구 있다, 하구 있다, 더두

들두 말구(더도 덜도 말고)'에서처럼 음성모음 계열의 '-구'가 주로 쓰이는 공통점이 있다.

특이한 형태로 주격표시 기능을 하는 '-에서'와 '-이서', '-서'가 있다. 이 '-에서/-이서'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선행하는 체언으로 행위자의 기능을 하는 단체나 집단을 나타내는 무정체언을 요구하고 서술어로는 동작동사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1) ㄱ. 정부에서 앞장서야지.(정부가 앞장서야지.)

ㄴ. 집이서 ㄹ. 그 말얼 해 가주구 이롭게 됐잖어.(당신이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됐잖아.)

ㄷ. 범인얼 진천 지서서 잡엿다야.(범인을 진천 지서가 잡았대.)

두 명사 사이에 쓰여 이들 명사를 더 큰 명사구로 묶어 주면서 앞의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표준어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하는 충북 방언형은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으, -에, -우'가 쓰인다.

(2) ㄱ. 우리으:(의) 처질(처지를) 생각해서래두 그래만 안 디야(돼).

ㄴ. 밭에(밭의) 곡석언(곡식은) 논에 다: 되고.

ㄷ. 너는 왜 남에/남우(남의) 집에 와서 그래니?

선행하는 체언이 복수임을 나타내는 복수 표시에는 '애:덜이/애:들이(아이들이) 그랬어. 책덜얼/책들을(책들을) 들구 와야지'에서와 같이 '-덜'과 '-들'이 쓰이는데 노년층에서는 주로 '덜'이 쓰이고 젊은층일수록 '-들'을 쓴다.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유정물 체언을 부를 때 쓰이는 호격 조사로 '-아, -야, -이, -Ø'가 쓰인다. 이 가운데 '-아, -야'는 전 연령층에서 사용하고 '-이, -Ø'는 중년층 이상, 특히 노년층에서 주로 사용한다.

2) '집이서'에서 '집'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주로 중년층 이상의 여성 2인칭이며 젊은층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때의 '집'은 2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3) ㄱ. 세진아! 할아버지하구 같이 가자!

ㄴ. 진수야! 넌 어디 가니?

ㄷ. 영석이! 장에 가는가?

ㄹ. 병주! 감자는 다: 췌는가?

ㅁ. 김동석! 너 왜 그래?

위의 예문 ㄱ과 ㄴ에서 선행하는 체언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와 ‘-야’가 선택되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ㄷ과 ㄹ도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가 쓰이거나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세대 전만해도 ㄱ과 ㄴ의 ‘-아’와 ‘-야’는 중년층 이상에서는 잘 쓰지 않고 ㄷ과 ㄹ의 ‘-이’와 ‘-∅’를 썼는데 요즈음은 노년층의 친구 사이에서 ‘-아’와 ‘-야’가 쓰이는 대신 ‘-이’와 ‘-∅’는 상대적으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ㄷ과 ㄹ의 ‘-이’와 ‘-∅’는 예문에서 보듯이 ‘하계’할 자리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어서 격식과 형식을 덜 중요시하는 요즈음에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ㅁ에서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경고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청자의 나이가 화자의 나이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언권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문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어법인데 충북 방언에서도 경어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충북 방언에서 평서문에 사용하는 경어법 형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4) 갑니다	가십니다	옵니다	오십니다
가유	가시유/가슈	와유	오시유/오슈
가네	가시네	오네	오시네
간다	가신다	온다	오신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4)와 같은 등급체계보다 반말체 종결형인 ‘-아/-어’와 여기에 두루 높임을 나타내는 ‘-오/-요’가 연결된 ‘-아요/-어요, -아유/-어유’가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5) 가요/가유	가시(세)요/가시(세)유	와요/와유	오시(세)요/오시(세)유
가네	가시네	오네	오시네
가	가셔	와	오셔
간다	가신다	온다	오신다

위의 (4)와 (5)를 통합하여 명령형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6)에서와 같이 충북 방언의 경어법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6) 가십시오	오십시오
가요/가유	와요/와유
가	와
가게	오게
가라/가거라	와라/오너라

그런데 ‘가십시오, 오십시오’와 같은 격식적인 형식은 관공서의 장이나 낮이 익지 않고 나이가 있는 어른, 또는 격식을 차려야 할 상황에서 쓰인다. 반면에 ‘가게, 오게’와 같은 ‘하계’체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가 고려되는 경어 등급인데 한 세대 전에는 화자의 나이가 서른 살 정도만 넘으면 친구나 화자보다 나이 어린 성인에게 쓰이던 것인데 지금은 화자의 나이가 중년은 넘어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쇠퇴해 가는 경어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 방언의 문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인칭대명사의 쓰임이다. 충북 방언의 인칭 대명사는 대부분의 중부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격조사와 함께 쓰일 때 그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다. 가령 충북 방언 고령층 화자들이 일인칭 대명사로 ‘나’를 쓰는 것은 다른 방언과 동일한데 이것이 주격조사와 결합하면

‘내’가 되고 이것이 겸양의 지칭어로 쓰이면 ‘저’가 되고 여기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면 ‘지’가 된다.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면 ‘제’나 ‘지(저의)’로 나타나는데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지’가 쓰인다. 이에 비해 젊은층에서는 일인칭 대명사 ‘나’가 겸양의 지칭어로 쓰이면 ‘저’가 되는 것은 고령층과 같지만 여기에 주격조사가 결합되면 ‘제’가 된다.

충북 방언 고령층의 재귀대명사 ‘자기’의 주격형도 겸양을 나타내는 일인칭 대명사 ‘지’와 형태가 같지만 경어법상의 대우 등급은 ‘자기’보다 한 등급 아래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기’의 관형격형은 ‘제(자기의), 즈:(자기의)’가 쓰인다. 이 재귀대명사 ‘자기’가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덜/-들’과 함께 쓰이면 ‘즈:’로 나타난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모두 ‘자기’로 통일되어 쓰이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 방언의 고령층에서 의문대명사 ‘누구’를 주격으로 쓰면 ‘누’가 되고 관형격으로 쓰이면 ‘누/뉘’로 나타난다. 의문 조사나 부사격 조사 또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면 ‘누구’로 나타난다.

일인칭 대명사 ‘나’와 마찬가지로 이인칭 대명사 ‘너’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너’지만 주격으로 쓰이면 ‘니’가 되고 관형격으로 쓰이면 ‘느~니([niy])’로 나타난다. ‘니’는 주로 중년층 이하 젊은 세대에서 쓰이고 ‘느’와 ‘늬’는 주로 고령층에서 쓰인다. 여기에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덜’과 결합하면 ‘느’가 되어 ‘느덜이 가야지’와 같이 사용된다.

인칭대명사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명사		주격	관형격	목적격/부사격	지칭어	복수
나	평칭	내	내	나	나	우리
	겸양칭	지	제, 지	저	저	지, 즈:
너	평칭	니	느:, 늬, 니	너	너	느
누구	평칭	누	누, 뉘	누구	누구	누
자기	평칭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지
	겸양칭	지	제, 즈:	저	저	즈:

충북 방언에서 자주 사용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충북 사람임을 알아채는 또 하나의 문법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간 모음이 ‘아’나 ‘애’로 끝날 때 여기에 반말체 종결형 ‘-아/어’가 연결되는 경우와 서술형에서 의존명사 ‘기(거)’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문장을 종결하는 형식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융합현상이다. 먼저 어간말 모음과 종결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예를 보자.

- | | |
|---|----------------------------|
| (7) ㄱ. 이거 줌 꼭마/미야(이것 줌 꼭매). | 장작 줌 파/피야(장작 줌 패). |
| 이거 줌 햐/히야(이것 줌 해). | 감자 줌 카/키야(감자 줌 कै). |
| ㄴ. 알었다 그랴/그리야(알았다고 해). | 아, 급햐/히야(아, 급해). |
| 안 간다/간디야(거기에는 안 간대). | |
| ㄷ. 얼렁 오랴/오리야(얼른 오래). | 아, 그췌 그룽다/그룽디야(아, 글췌 그렇대). |
| cf. 알었다 그려/그리여. 안 간더/간디여. 얼렁 오려/오리여. 아, 그췌 그룽더/그룽디여 | |

위의 예들은 종결형에서 어간 모음이 ‘아’나 ‘애’로 끝날 경우 어미 ‘-아/어’가 연결될 때 표준어에서는 ‘아’나 ‘애’로 끝나는 것인데 충북 방언에서는 ‘야/이야’로 끝나는 예들이다. 표준어에서는 어간이 모음 ‘이’일 때 종결어미 ‘-아/어’가 결합되면 어간과 어미가 융합되어 ‘여’로 바뀌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충북 방언에서도 나타나 ‘기어 간다’를 ‘겨 간다’고 한다. 그러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사정이 달라져 (7)의 예들은 ‘매구/매지, 패구/패지, 하(해)구/하(해)지, 캐구/캐지, 그래구/그래지, 급하(해)지/급해, 가구/가지, 오구/오지, 그룽구/그룽지’와 같이 활용된다. 이런 예들은 일종의 이중 어간 구조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양상이 서술형으로 의존명사 ‘기(거)’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융합현상이다. 표준어 형식으로는 ‘것이야’ 정도가 될 것인데 충북 방언에서는 ‘기여’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는 기여 안 가는 기여(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먹는 기여 안 먹는 기여(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와 같이 쓰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충북 방언 외에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법 형태가 이들 지역과 접경을 이루는 충북의 제천, 단양 등 지역에서 사용되는 종결형 ‘-(이)래요’가 있다. 표준어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자기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간접화법으로 말하는 평서문에 쓰이는 형식이지만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평서문이나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에도 널리 쓰인다는 점이 특이하다.

- | | |
|---------------------|-------------------|
| (8) ㄱ. 여:가 시청이래요? | 이것두 먹는 거래요? |
| ㄴ. 여:가 시청이래요. | 이것두 먹는 거래요. |
| (9) 금요일까지 꼭 갖다 놓래요. | 잊어빠리지 말구 꼭 가져가래요. |

위의 예문에서 (8ㄱ)은 의문문에서 ‘-래요’가 쓰인 것이고 (8ㄴ)은 평서문에서 ‘-래요’가 쓰인 것이다. 즉 (8ㄱ)과 같이 물었을 때 (8ㄴ)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다. 억양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적으로는 동일한 문장이다. 표준어에서라면 (8ㄴ)은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시청이라고 해요’나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먹는 것이라고 해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용법이다. (9)의 예문은 ‘금요일까지 꼭 가져다 놓아요’나 ‘잊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형태적으로 동일하더라도 방언권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이 ‘-(이)래요’도 젊은층 화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국 충북 방언의 문법적인 특징은 다른 중부 방언의 문법적인 특징들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충북 방언만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노년층 그 중에서도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충북 방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2.3. 어휘

한 방언을 다른 방언과 구별짓는 가장 분명하고 객관적 증거로 삼는 것이 어휘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우리는 이런 어휘를 쓰는데 저쪽 지역 사람들은 저런 어휘를 쓴다는 것이 우리와 저쪽 사람들을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방언은 국어의 하위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언이 다른 방언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언권 화자들이 만나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즉 이 방언을 쓰는 사람은 저 방언을 쓰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같은 말을 쓰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어휘가 충북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방언까지 널리 분포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고 같은 어휘라도 지역에 따라 용법이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충북 방언 어휘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어휘의 용법과 의미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에서 충북 방언에서 관찰되는 특징 적인 어휘 몇몇을 살펴보자.

국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충북 방언에서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충북 방언에서 ‘팔다’는 ‘팔다(賣)’와 ‘사다(買)’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충북의 북부 지역인 음성, 제천, 단양과 괴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표준어에서 ‘돈을 주고 쌀로 바꾸어 온다’는 ‘사다’의 의미로 ‘팔다’가 쓰이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쌀 팔루 갔어, 쌀 팔어 왔어’ 하면 ‘쌀을 주고 돈으로 바꾸어 온다’는 ‘팔다(賣)’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북 방언에서 ‘팔다’가 표준어 ‘사다’의 뜻으로 쓰이는 지역에서는 표준어 ‘팔다’의 뜻으로 ‘꼬추 내루 갔다, 쌀 내루 갔다’와 같이 ‘내다’를 쓴다. 이때의 ‘팔다’와 ‘내다’는 곡식에 대하여만 각각 ‘사다’와 ‘팔다’의 뜻으로 쓰고 공산품이나 다른 물건에 대하여는 표준어에서와 똑같이 ‘팔다’와 ‘사다’를 쓴다.

충북 방언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힘들다’ 정도의 뜻으로 ‘대간하다’ 또는 ‘대근하다’가 쓰이는데 각각 ‘대간하다, 대간해, 대간한 일, 대간하지, 대간할 기여’와 ‘대근하다, 대근해, 대근한 일, 대근하지, 대근할 기여’와 같이 활용한다. 이런 어휘는 충남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쓰인다.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어휘로 ‘어렵고 나쁘다’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망했다’와 ‘고약하다’가 있다. ‘망했다’는 ‘일하기가 천하에 망했어. 손질을 안 해서 먹기가 망했는디’에서와 같이 ‘망했-’의 꼴로만 쓰인다. ‘고약하다’는 ‘고약하다, 고약한, 고약하구, 고약해서’와 같이 활용하는데 ‘일’이나 ‘먹기’, ‘베기’ 등 동작성 명사나 동명사와 호응하여 쓰이는 특징이 있다.

충북 방언에서 표준어 ‘토라지다’의 뜻으로 ‘빼지다’가 쓰이는데 ‘빼져서, 빼지구, 빼지닝께’ 등과 같이 활용한다. 이 어휘가 서술어로 쓰일 때 함께 쓰이는 주체는 ‘00가 빼져서 여기 안 와’에서와 같이 사람이라야 한다. 표준어 ‘방아깨비’에 대응하는 충북 방언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은, 옥천, 괴산 등 남부 지역과 제천, 단양 등 북부 지역에서는 ‘땅개비’가 쓰이는데 비해 음성, 충주, 진천, 청원 등 중부 지역에서는 ‘항(황)가치’가 쓰여 충북 내에서도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물기가 많고 말랑말랑한 벼알로 손톱으로 누르면 터지면서 하얀 쌀물이 나오는 벼알을 ‘무녀물, 물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벼알이 손톱으로 누르면 터질 정도가 된 상태를 ‘무녀물 들었다, 물고물 들었다’고 하고 그런 상태의 벼를 ‘청치, 청치비/청치베, 청얼치’라고 한다.

충북 방언에서 항상 ‘봉/뽕얼 빼다, 봉/뽕얼 뽑다’의 구성으로만 쓰이는 ‘봉/뽕’이 있는데 표준어에서 ‘봉’은 ①‘그릇 따위의 뚫어진 구멍을 메우는 다른 조각’ 또는 ②‘치레로 물건 바닥 한복판에 박아 넣는 다른 물건’의 뜻으로 쓰인다. 충북 방언에서는 ‘그 인간은 술만 찾아서 봉/뽕얼 빼잖어’와 같이 쓰인다.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끝장을 보기까지 한다는 뜻이 있는데 표준어의 ‘봉’의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준어에서 ‘끓임없이 잇따라’의 뜻으로 쓰이는 ‘줄곧’이 있는데 이런 뜻으로 쓰이는 충청도 방언으로 ‘상굿, 상구’가 있다. ‘상굿 놀다가 인제 왔다, 아침버터 지금꺼정 상구 기다리구 있는 기여(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와 같이 쓰인다.

표준어에서 ‘딸기속 식물을 통틀어 이르거나 그 열매를 가리키는 말’로 ‘딸기’가 쓰인다. 이것을 가리키는 충북 방언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북의 남부 지역과 단양, 제천 등 충북의 북부 지역에서는 ‘딸:’형이 쓰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딸구/딸귀/딸기’형이 쓰이는 분포상의 특징을 보인다.

이 외에도 ‘너 시방 무신 소릴 하는 거니?’나 ‘너 운제 왔니?’, ‘고대 왔어’, ‘뽕나케 왔는데두 늦었네’와 같은 예에서 부사로 쓰인 ‘시방’과 ‘고대’ 및 ‘뽕나케’도 충북 지역에서 쓰이는 특징적인 방언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각각 ‘지금’과 ‘아까’, ‘빨리’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어휘들 외에도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는 충북 방언을 몇 개 더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준어	충북 방언	표준어	충북 방언	표준어	충북 방언
고갱이	꼬개이/꼬배이	가위	가새	거울	절
냉이	나새이/나싱개	가을	가슬/가실	개암	개감/개금/깨금
다슬기	골배이/올배이/올개이	회충	거시/회	나무	낭구
또아리	따배이/또배이	구유	구수/구시	벌레	벌거지
모퉁이	모테이/모티이/모팅이	모이	모시 준다	어레미	얼기미/얼게미
새우	새배이	무	무수/무시	넙다	내굽다
언청이	어체이/허체이	아우보다	아수/아시본다	시다	시굽다
우렁이	우레이/올베이	시렁	실경/실광	짜다	짜굽다
정강이	장개이/얹장개이	여우	여수/여시	가렵다	갈굽다/깟굽다/개롭다

충북 방언에 대한 두 번째 연재물에서 충북 방언의 하위 방언권을 대략 남부 방언권, 중부 방언권, 북부 방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부 방언권에는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이 포함되는데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접해 있다. 중부 방언권에는 청주, 괴산, 진천, 음성과 충주 지역에 포함되는데 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과 접해 있다. 그리고 북부 방언권에는 단양과 제천이 포함되는데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인접해 있다. 이 세 하위 방언권에서 쓰이는 어휘나 표현을 비교해봄으로써 충북 방언의 어휘적 특징을 조망해 볼 수 있다. 북부 방언권인 단양이나 제천에서는 ‘지금 및 시래요?’ 하고 물으면 ‘일곱 시래요.’와 같이 대답하여 의문형과 서술형 종결어미로 ‘-요’를 사용하는데 비해 중부 방언권에서는 ‘지금 및 시유?’ 하고 물으면 ‘일곱 시유.’와 같이 종결어미로 ‘-유’를 사용한다. 또한 북부 방언권과 중부 방언권에서는 표준어의 ‘얼른’에 대하여 ‘얼렁/얼런/얼른’이 쓰이는데 비해 남부 방언권에서는 ‘쌔기/쌔개’가 쓰이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충북 방언의 세 하위 방언권에서 쓰이는 몇 개의 어휘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표준어	북부 방언권	중부 방언권	남부 방언권
Ⅰ류	키	치	치/키	챙이/칭이
	벼	베/비	벼/베/비	나락
	절구	절구	절구/절구통/도구통	도구통/도기통
	뜰	봉당	봉당/뜰팡	뜨럭
	아궁이	보강지	고쿠락	고래/고래구녕
	갈퀴	각지/깍지	갈키/깍키	깎꾸/깎키
	고양이	고내이	고양이	괭이
	누에	농애	누에/늬/늬애	늬
	고무래(재)	곰배	고물개	고밀개/밀개/괴밀개
Ⅱ류	딸기	딸:	딸:구/딸:기/딸:귀	딸:
	절이다	절이다	절구다	절이다
	인두	윤두	인두	윤두
	오이	물외	오이/외	물외/외
	씨아	쌔기	씨아/씨앗이	쌔기/씨앗이
	가래떡	가래떡/떡가래	떡가래	가래떡
	퀘어라	퀴:라	꼬여라/퀴:라	퀴:라
	잠자리 부르는 소리	~꽁꽁 앓을 자리 앓아라	~동동 파리 동동	~꽁꽁 앓을 자리 앓아라
Ⅲ류	까치	까치	까치	간치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아:래
	쌈	쌈	쌈	삼:
	용마름	용구새	용구새	용마람

Ⅲ류	두벌 맨다	이름 맨다	이름 맨다	두벌 맨다
Ⅳ류	개상	챗상	개상	개상
	(곡식)팔다	팔다	내다	내다
	(곡식)사다	사다	팔다/사다	팔다
	부추	분추/쫄	정구지	정구지
	갈치	칼치	칼치/갈치	갈치

위의 표에서 I류의 어휘들은 세 방언권에서 서로 다른 방언형이 쓰이는 예들이다. 이에 비해 II류의 어휘들은 지리적으로 양 끝에 있는 북부 방언권과 남부 방언권에서는 같은 방언형이 쓰이는데 반해 중부 방언권에서는 다른 형태의 방언형이 쓰이는 예들이다. 그리고 III류의 어휘들은 북부 방언권과 중부 방언권에서는 같은 방언형이 쓰이는 반면 남부 방언권에서는 다른 형태의 방언형이 쓰이는 예들이다. IV류의 어휘들은 북부 방언권에서 쓰이는 방언형이 나머지 두 방언권, 즉 중부 방언권과 남부 방언권에서 쓰이는 방언형과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충북의 방언을 세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구분하면 북부 방언권에는 단양, 제천과 충주시와 괴산 연풍면과 장연면이 여기에 포함되고 중부 방언권에는 괴산의 나머지 지역과 음성, 진천, 청주와 보은의 북부 지역인 내북, 회북, 회남면과 옥천의 군북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남부 방언권은 군북면을 제외한 옥천과 영동 그리고 보은의 동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북의 하위 방언권별 어휘 사용의 차이는 소백산맥, 태백산맥, 차령산맥 등의 지형적인 조건과도 관련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고토에 속했던 북부 방언권과 백제의 고토에 속했던 중부 방언권, 그리고 신라의 고토에 속했던 남부 방언권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도 흥미롭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충북의 방언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화자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방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방언의 분포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충북 방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인접한 다른 지역 방언과 대체로 소통이 되면서도 때로는 소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체로

음운체계나 음운 현상 그리고 문법 구조 등에서는 소통이 어려울 만큼의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어휘에서는 형태나 의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이 높고 교통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국이 표준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어휘나 표현들이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다양한 어휘와 표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폭이나 깊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즈음은 기성세대와 젊은 청년층 세대 간에 소통이 매끄럽지 못하다거나 오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방언 내지는 국어 사용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방언 나아가 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대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경우는 상대가 사용하는 말의 뜻을 즉각적이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긴다. 기성세대가 쓰는 어휘를 젊은층 세대가 모르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소통의 단절이나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방언을 몰라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급속히 사라져가는 방언이 그러한 촉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음 연재에서는 사라져가는 충북의 방언 어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계속)



03. 충북의 판소리

판소리 중고제와 충북의 명창

서일도(박팔괘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판소리(板聲)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음악극으로,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예술이다. 소리꾼은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필요할 때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는 ‘아니리’를 곁들인다. 또한 손짓과 몸짓, 표정 등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발림’을 사용하여 관객의 몰입을 이끈다. 이때 고수는 북 장단을 통해 극의 흐름과 긴장감을 조절할 뿐 아니라 “얼씨구”, “좋다”와 같은 추임새를 넣어 소리꾼과 호흡을 맞추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판소리 한바탕은 보통 4시간에서 8시간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 명창인 모흥갑이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
_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평양도 10폭 병풍”의 부분
(이미지 출처: 우리역사넷(<https://contents.history.go.kr>))

긴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대표 작품으로는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 다섯 바탕이 있다. 이 작품들은 충(忠), 효(孝), 의(義)와 같은 전통적 가치뿐 아니라 풍자와 해학을 통해 당시 민중의 삶과 정서를 담았다.

판소리는 노래, 이야기, 연기가 결합된 독특한 종합예술일 뿐 아니라, 공연자와 청중 사이의 호흡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관객은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추임새를 통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이로써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한국적 공연 양식이 완성된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판소리가 한국 민족 고유의 정서와 미학,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입증한다.



〈초기 유성기음반 광고지〉『매일신보』, 1911. 8. 29.



〈중고제 명창 이동백의 1915년 녹음 빅터 SP 음반 “춘향가”〉

최근 일제 강점기 유성기 음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동편제와 서편제의 두 흐름으로만 분류되던 판소리가 동편제(東便制)·서편제(西便制)·중고제(中高制)의 세 흐름으로 정립되었다. 동편제와 서편제는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남도 소리의 계열인 반면, 중고제는 충청도와 경기도, 즉 중부 내륙의 지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중고제는 전승의 단절로 인해 실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와 복원에 힘써야 할 장르로 남아 있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한강과 금강 유역을 연결하는 교차로이자, 삼국시대 이래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중심지였다. 따라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고제 연구는 단순히 한 판소리의 유파를 밝히는 차원을 넘어, 충북학적 관점에서 지역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판소리 중고제와 충북

중고제는 동편제와 서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정리된 용어이나, 실질적으로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 전승되던 판소리의 한 양식을 가리킨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동편제는 호남 서부에서, 서편제는 호남 남부에서, 중고제는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유행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지리적 차이만이 아니라, 음악적 성격과 미학적 지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중고제는 호탕하고 담백한 발성, 평조·우조 중심의 선율 전개, 절제된 시김새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전라도 계열의 소리가 계면조 위주의 농밀한 감정 표현과 시김새를 중시한 데 비해, 충청 내륙의 담백한 정조와 균형미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중고제는 남도의 격정적 서사와 달리, 중부인의 진중하고 고즈넉한 생활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 예술 양식으로 평가된다.

충북은 역사적으로 북방과 남방 문화가 교차하는 교두보였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 충북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문화적 혼합성을 만들어냈다. 충북 방언은 중부방언권에 속하면서도 남부와 북부 방언의 특징이 공존하며, 절제된 억양과 담백한 어투가 특징이다. 이는 판소리 중고제의 발성과 창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충청도는 조선 시대 한양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정계와 연결된 사족(士族, 양반 계층)들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이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양반의 비중이 높아 양반의 고장으로 불리었던 탓에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말과



점잖은 행동 등이 음악적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남도의 바다와 평야에서 비롯된 격동적·애상적 감정보다는, 내륙적이고 절제된 감성이 강했다. 이는 중고제가 남도 소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직선적인 선율, 호방하지만 절제된 표현을 지향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3. 충북 출신 중고제 명창

중고제는 고제(古制)로도 불리는데 이는 서편제, 동편제 이전의 소리로 오래된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중고제는 전승의 맥이 끊어져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미미 하였으나 유성기음반, 조선창극사, 인터뷰 자료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중고제의 중요성과 재인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판소리에 관련된 자료 중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는 판소리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저술로서, 판소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귀중한 자료이며 그 위상과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충북은 중고제 계열의 명창들을 다수 배출한 지역으로, 이들의 활동은 중고제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① 염계달(廉季堧) - 음성 출신

음성 ‘벽절’(벽이 있는 절벽)로 알려진 음성군 가섭사 인근에서 약 10년간 수련 후 득음하였다.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이자, 중고제 판소리의 시조격으로 경드름(京調)과 추천목을 판소리에 도입하여 ‘성음(聲音) 표준’을 수립했고, 후대 중고제 명창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염계달 명창을 기리는 ‘국제 판소리 축제’ 및 중고제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정노식 저, 『조선창극사』(초판본),
조선일보사출판국, 1940.01.18.〉

② 최낭청(崔郎廳) - 괴산·증평 출신

『조선창극사』에 따르면, 출생지는 ‘충청도 청안’으로,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 명으로, ‘어전광대’라는 벼슬도 받았다는 점에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던 명창이다. 정노식은 그를 ‘학식과 기량을 모두 겸비한 명창’으로 평가했다. 어전에서 소리할 만큼 뛰어난 음악성과 즉흥성, 작·편곡 능력을 갖췄던 인물로 전해진다. 괴산군은 최근 그의 존재를 알리고자 발굴 사업과 학술 세미나를 추진 중이다.

③ 김제철(金齊哲) - 괴산 출신

괴산 지역 출신으로 판소리 ‘석화제(石花制)’라는 창조적 창법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석화제 특징: 석화제는 가야금병창과 유사한 스타일로, ‘경쾌하고 화사하며 화평한’ 느낌이 특징이다. 조선 순조~철종 시기에 김제철 등 충청권 명창들이 처음 사용한 소리제이다.

충북 괴산이 이러한 창법의 기원지로 평가되며, 충북 명창의 창작적 역량을 상징하는 인물로 꼽힙니다.

④ 김봉학(金奉鶴) - 진천 출신

충청북도 진천 출신이며, 조선시대 중고제 판소리 방식 중 ‘호걸제’를 구사한 명창이다. ‘호걸제’는 그의 독특한 창법으로, 충청권의 소리 멋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여겨진다. 이동백 명창이 김봉학과 관련된 증언을 남긴 기록이 있으나, 정작 김봉학의 실증 자료는 부족하다.

⑤ 이창운(李昌雲) - 문의 출신

충청북도 문의(현 청주시 일부) 출신의 명창으로 주로 <적벽가>에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새타령> 대목은 박유전, 이날치 이후로도 그만큼 잘 부르는 이는 드물었다고 전한다.

⑥ 박팔괘(朴八卦) - 충북 청원출신

판소리와 가야금에 뛰어나 충청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을 서울 장안에 처음으로 유행시켰고 가야금병창 명인중 최초로 유성기음반을 녹음 하였고 어 광대로 유명했다. 아울러 중고제의 음악적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충북 출신의 명창으로 충북의 방언과 정서를 소리 속에 담아, 남도 소리와 구별되는 중부 내륙의 소리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충북 출신 명창들의 소리는 전승의 맥이 끊어져 전승되지 못하고 일부 명창의 유성기 음반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유성기 음반 자료집 - 판소리 편』, 서울: 국립국악원, 2005.
- 김승호, 「판소리 중고제의 음악적 구조」, 『음악학논집』 제27집, 2008.
- 김희선,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 양상과 지역적 특징」, 『국악원논문집』 18 (2002): 55-78.
- 박병천, 「충북 지역문화와 판소리」, 『충북문화』 제12호, 1999.
- 서용석, 「박팔괘와 충북 판소리」, 『국악연구』 제45집, 2010.
- 윤소희, 「조선 후기 충청도 지역의 문화적 위상과 예술 활동」, 『한국학연구』 45, 2010.
- 이종민, 「중고제 판소리의 전승과 쇠퇴 요인」, 『한국전통예술연구』 제14집, 2015.
- 이해구, 『한국의 전통음악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임기현, 「판소리 중고제 연구」, 『국악논총』, 2003.
- 조석연, 『한국 판소리의 유파 연구』, 서울: 민속원, 1996.
- 조석연, 『한국 판소리의 유파 연구』, 서울: 민속원, 1996.
- 충북문화재단, 『충북 전통예술 총서 1 - 판소리 중고제』, 청주: 충북문화재단, 2015.

04. 낭독극

그 집, 희망가

* 편집자의 말 *

이번 호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에 있는 “청주 신행호 고가”를 ‘낭독극’ 대본으로 만나는 기획을 하였다.

집은 곧 고향이다.

집은 어머니의 품이고 아버지의 등이다.

집은 뿌리이며 역사다.

집은 숨이며 이야기다.

100여 년 전 집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 여전히 집을 그리는 그의 후손들이 있다. 그 집들이 더 무너지기 전에, 흔적이 지워지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여기서, 그들의 외로움을, 그들의 그리움을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많은 집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급한 청탁에도 좋은 글을 기꺼이 보내주신 작가에게 감사하다.



청주 신형호 고가(淸州 申鑠浩 古家)

독립운동가 신형호(1902~1947)의 고택으로 1881년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집은 신형호의 아버지 신정식이 의병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불을 질러 안채만 남았다. 신규식, 신채호 등이 문동학원을 이곳으로 옮겨와 교육운동을 하고 신기호도 야학을 했던 곳이다. 신형호의 동생 신기호와 그의 부인 송숙경이 마지막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낭독극

그 집, 희망가

심수영(작가)

등장인물

송여사 여, 90대 초반. 인차리의 신형호 고가를 마지막으로 지키고 살았던 송숙경 여사를 모델로 함.
단아하고 강단 있는 인텔리 할머니.

성주 영감 남, 나이를 정확히 짐작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의 노인.
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네 민간의 설화 속에서 집을 지키는 가택신(家宅神) 중
우두머리인 성주신이다.

냥이 길고양이 (눈에 보이지 않게 상상으로 등장하거나, 고양이 인형 정도로 대체)

시간 2005년 어느 날

공간 인차리 고가 (신형호 고가)

로그라인 불에 탔어도, 지붕이 내려앉고 허물어져 가도,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세월을 가만히 살아낸 ‘그 집’.
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세월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주었던
인차리 옛집(신형호 고가)의 이야기.

1. 프롤로그

-- 그 집, 행복했던 기억 하나

어느 햇살 좋은 날의 고즈넉한 인차리 고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대청마루.

안방 쪽에서 송여사(송숙경)의 콧노래 소리가 흘러나온다.

1930년대 유행한 ‘희망가’노래다.

<희망가> 1절이 끝날 즈음 송여사의 노래에 맞춰 같은 대목을 흥얼거리며 뒀란을 돌아 나오는 성주 영감,
대청마루에 가서 자기 집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터앉는다.

성주 영감 그렇지, 그래. 세상만사가 춘몽이라. 봄날 꿈 같고, 꿈속의 꿈 같고...
(안방 쪽을 보며) 우리 송여사,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아련해지며) 내가 여기서 태어나 살아온 지도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고..
송여사를 만난 건, 글썄.. 한 70년 됐으려나?
열아홉에 시집온 송여사가 어느새 90살 노인이 됐으니 세월 참...
(관객들에게) 그때 말이우, 꽃가마 타고 시집온
진사댁 셋째 아씨가 어찌나 고왔는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니까.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이 새색시 자태를 보고
저기 저 마당에 핀 분꽃 같다고들 했다우.
그날은 내 평생에 참 좋은 날 중에 하나였지.
여기 잔치 마당에서 신랑, 신부 혼례식을 보면서
모두들 왁자하게 웃고 음식도 나눠 먹고....
(쓸쓸해진) 그러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 집서 살았던,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송여사 혼자 저렇게 남았을까?

이윽고 안방 문이 열리고 송여사가 대청마루로 나온다.

손에 들린 네모진 밥상. 그 밥상은 앓은뱅이책상을 대신한 용도다.

상 위에 원고지와 연필도 얹혔다.

송여사, 여전히 희망가를 흥얼대며 대청마루에 가운데 자리 잡는다.

송여사 (원고를 뒤적이다가 마당을 살피며) 어째, 며칠째 안 뵈나 몰라.

성주 영감 누가 말이우?

송여사 (혼잣말, 송여사는 성주영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가? 오늘은 오나 했드니만.

성주 영감 누군데 그러시나. 올 사람 없는데...

송여사 (대문 쪽을 살피다가) 집 놔두고 어디 갔냐~옹? 밥은 먹었냐~옹?

성주 영감 (웃고) 난 또. 아, 팔자 좋은 팽이 녀석 말이구먼.

고놈 밥걱정은 안 해도 된다우.

길고양이 주제긴 해도 인심 좋은 이 동네 인차리 아주머니들이

이집 저집 좀 거뒀 먹여야지. 피둥피둥 살이 얼마나 찢게.

팽이 팔자가 상팔자여.

송여사 (화들짝) 아이쿠 참, 내 정신 좀 보게. 커핏물 올린 걸 깜빡허구.

성주 영감 (화들짝 같이 놀라) 거, 참, 불내면 어쩌려구!

송여사 (원고를 뒤적이다가 마당을 살피며) 어째, 며칠째 안 뵈나 몰라.

성주 영감 누가 말이우?

송여사 (혼잣말, 송여사는 성주영감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가 아픈가? 오늘은 오나 했드니만.

성주 영감 누군데 그러시나. 올 사람 없는데...

송여사 (대문 쪽을 살피다가) 집 놔두고 어디 갔냐~옹? 밥은 먹었냐~옹?

성주 영감 (웃고) 난 또. 아, 팔자 좋은 팽이 녀석 말이구먼.

고놈 밥걱정은 안 해도 된다우.

길고양이 주제긴 해도 인심 좋은 이 동네 인차리 아주머니들이

이집 저집 좀 거둬 먹여야지. 피둥피둥 살이 얼마나 찢게.

팽이 팔자가 상팔자여.

송여사 (화들짝) 아이쿠 참, 내 정신 좀 보게. 커핏물 올린 걸 깜빡허구.

성주 영감 (화들짝 같이 놀라) 거, 참, 불내면 어찌려구!

난 아직도 ‘불’에 ‘ㅂ’자만 들어도 가슴이 덜덜 떨리는구먼.

송여사 (혼잣말, 일어서면서) 그래도 전기로 물을 끓이니 얼마나 좋은 시절이야. 매번 깜빡해도

다 끓고 나면 저절루 꺼지구.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편한 세상도 다 살아보는구먼.

송여사, 희망가 노래 끝부분.. ‘희망이 족 할까~’ 흥얼거리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다.

2. 그 집의 탄생

성주 영감 (송여사 뒷모습 보며) 쯤, 겨우 한 90년 산 거 같구

뭘 그리 오래 살았다구. 가만 그러구 보니 내 나이가 몇이더라..

올해가 2005년이니까... 어림잡아도 120살이 넘었네.

만약 지금이 2025년이라면.. 내 나이는 140살이 훨씬 넘었을 테고.

거짓말 같다구? (웃음) 허긴 내가 좀 젊어 보이긴 허지.

그래두 거짓말은 절대 아니라우.

왜냐? 내가 태어난 해가 1881년이거든.

그땐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었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말이 되냐구?

(웃음) 말이 안 되지.

(정색)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면? 그땐 말이 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나는 말이우, 나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바로 이 ‘집’이래오.

옛날 사람들은 나를 성주신이라고도 불렀는데..
성주신이 뭐냐하면.. 집 지키는 귀신이라고 해야 하나?
집과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을 수호하는 가택신들 중 우두머리라오.
뭐 명색이 신(神)이긴 해도 크게 격식 차릴 건 없구,
그냥 성주 영감이라고 편하게들 대하면 되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집에도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구먼.

송여사, 커피잔을 들고 다시 대청마루로 나온다.

밥상 앞으로 와서 연필을 잡고,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뭔가 쓰기 시작한다.

성주 영감 (송여사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은 송여사가 이 집,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 주인이라오.
송여사는 지금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시집와서 평생을 지켜본 이 집 사람들, 인차리 신씨 집안의 이야길
죽기 전에 꼭 기록해두고 싶다나?
송여사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경성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으로 군산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1933년인가 인차리로 시집을 왔는데 말이우.
젊어선 독립운동하는 시댁 사람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중년엔 일본어 번역일도 하고, 행상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호구지책 없는 식구들 건사하며 살았으니,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을까.

송여사, 쓰기를 멈추고 마루 끝을 바라본다.

마치 거기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

송여사

(정답게) 밥은 먹어나~옹?

배가 불룩한 걸 보니 어디서 맛난 걸 얻어 자셨구먼.

그럼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 잠이 솔솔 오게

이 할미가 옛날얘기라도 해주랴?

우리 시어머님께 들은, 이 집의 탄생에 대한 얘긴데..

내가 요즘 글로 쓰고 있거든.. 어때, 한번 들어볼래?

냥~ 그래, 그래, 얼른 해보라 이거지?

(이하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1881년 어느 날이었어.

이 집을 지으신 어른은 내게 시할아버님 되시는 신용우 어른인데,

산동신씨 문중의 큰 어른이셨거든.

산동신씨가 뭐냐구~냥?

고령신씨 중에서도 여기 가덕면, 낭성면, 미원면 일대에 살아가는

이들을 상당산성의 동쪽에 사는 신씨들이라고 해서

‘산동신씨’라부른단다.

시할아버님은 그 산동신씨 일가 중에서

의금부 도사를 지내실 만큼 높은 벼슬도 하셨고,

춘궁기에는 공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과 곡식을 나눌 만큼

인심도 좋은 양반이었다는구나.

손이 귀한 집이라 부인을 다섯이나 두셨다는 건 ‘안 비밀’이구.

암튼 이 어른이 첫째 부인에게서는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신정식 어른을 장남으로 두셨구.

넷째 부인에게선 신규식, 신건식 어른을 둘째, 셋째 아들로 두셨구.

다섯째 부인에게서 신동식 어른을 넷째 아들로 두셨으니,

마침내 자손이 번창하게 됐다며 무척 기뻐하셨다지.

그 아드님들이 다 독립운동하느라

온갖 고초를 겪을 줄은 모르시구 말이야.

하여튼 이 어른의 자손이 번창하니

더 큰 집을 새로 지으려구 하셨다지.

그래서 저기 보은 회인으로 넘어가는 피반령 산자락의

잘생긴 소나무 고목들을 물색하셨단다.

그걸로 이 집의 대들보와 서까래를 만드신 게야.

곧고, 굵고, 의젓하기 짝이 없는 나무들로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지 이 신씨 집안 자손들도

그 대들보와 서까래를 닮아 하나같이 곧고 의젓했지.

부러질지언정 굽어질 줄 몰랐으니... 그게 복인지 화인지 원...

처음 지어지던 1881년엔 근동에서 보기 드물게 큰 집이었다는구나.

맵시 뛰어나고 늠름하고 아주 잘생긴 기와집이었다는데...

나는 아쉽게도 본모습을 구경하진 못했어.

왜냐구? 내가 시집왔던 1933년엔 안채 하나밖에 남지 않았거든.

시아머님 말씀을 듣고 그저 사랑채는 여기였겠구나,

행랑채는 이랬겠구나 상상만 했을 뿐이지.

그래도 안채만 남은 이 집을 동네 사람들 모두

‘진사댁’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생각했어.

이 집이 지어지고 몇 해 있다가 바로

내 시아버지 되시는 신정식 어른이 소과에 합격하셨거든.

그래서 내내 진사댁이라 불리게 된 거지.

왜놈들이야 지들 멋대루 이 집을 내내

‘불령선인 소굴’이라고 불렀지만서두.. 불령선인이 뭐냐구~냐?

불령선인.. 불량한 조선사람이란 뜻인데...

왜놈들이 불량하다고 하면 뭐겠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지.

성주 영감 그랬지. 특하면 왜놈들이 불령선인 소굴이라면서 들이닥쳤어.
아마 1903년이던가?
신씨 문중이 열었던 문중학교 문동학원이 재정난을 겪자
이 집 사랑채로 옮겨와서 열었는데 말이야.
그때 신규식이며, 신채호 같은 인물들이 강사로 드나들었지.
신규식은 당시 이 집 주인이었던 신정식의 동생이고,
신채호는 같은 집안의 인물이었으니
왜놈들에겐 이 집이야말로 불령선인 소굴 중의 소굴이었던 거야.

3. 불타는 집, 안채 하나뿐인 사연

송여사 그러다 그 일이 일어났단다!

성주 영감 그일이라면...?! 아이구, 그날은 내가 생각도 하기 싫구먼.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온몸이 떨리니..
제발 꺼내지 말라구, 송여사. 뭐 좋은 일이라구.

송여사 이 집이 안채만 남게 된 사연이지.
나도 들은 얘기라.. 정확친 않지만
연안 이씨이신 우리 시어머님 시집오시고 대여섯 해 지나서였단니까
아마 1907년 정미년이었을 거야.
시어머님은 그날 이후 집안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다고 하셨지.

성주 영감 그와 함께 내 운명도 바뀌었구.
집은 집주인들의 운명을 따라가는 법이니까..

송여사 이 집으로선 그날이 원통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 이후 울분인지 핏병인지
가장이신 시아버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시어머님도 수시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울렁증을 평생 앓으셨다니
얼마나 딱한 노릇이겠어.
그러니까 정미년 그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구?

성주 영감

(옆에서 귀를 막고 있다가 풀며)
에잇, 차라리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낫겠어.
“불이야! 불이야!”
한밤중에 이 집 사랑채가 불길에 휩싸였지.
치솟은 불길은 삼시간에 행랑채로 번지고 기왓장이 내려앉고..
피반령 소나무로 세운 기둥들이 불타면서
문간채도, 마구간도, 손쓸 틈 없이 주저앉고 말았대요.
집안 사람들이 뛰쳐나와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지.
그건 저절로 일어난 불길이 아니었으니까.

송여사

글쎄, 말을 타고 온 왜놈들이
일부러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던 거야.
동네 사람들도 총을 든 그 왜놈들이 무서워서
불이 나도 차마 달려오지 못했던 거고.
행랑채까지 삼킨 불길이 안채로 번지기 시작하구서야
왜놈들이 돌아갔지.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겨우, 겨우, 불길을 잡아 안채 하나만 건졌다는구나.
이 집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
(고양이를 바라보며) 나비야, 너, 저기 한 번 볼래?
(마당에서 보아 왼편 처마를 가리키며)

바로 저기, 남쪽 처마 밑을 자세히 보렴.
서까래들이 까맣게 그을린 게 보이지?
그날 불길이 옮겨붙다가 꺼진 흔적이란다.

성주 영감

그날 이후, 문간채, 사랑채 잃고
그을린 채 서 있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주인이신 신정식 어른이
가끔 그을린 서까래를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

“어떻게, 좀 더 버틸 수 있겠어? 힘들겠지만 버텨, 버텨야 해.
왜놈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지.
불에 탔지만, 아직 안채는 이렇게 남아있으니.
힘들더라도 버텨야 해.. 쓰러지지 말구 다시 일어나야 해.”

그건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버티기로 했어.
나는, 내 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집이니까.
비록 내 몸은 절반이 넘게 타버렸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집인 나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기로 한 거야.
살아가면.. 살아지고.. 살아지면.. 또 희망을 품게 되더라고.

송여사

(고양이를 보고) 갑자기 꼬리는 왜 그리 치켜드누?
오라, 일본놈들이 왜 이 집에 불을 질렀는지 궁금하다는 거냐?
얘기해 주랴? (관객들의 듣고 싶다는 대답 유도하고)
정미년 그해, 군대해산이다,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다 해서
의병이 크게 일어났거든.
그 의병들이 이 댁 어른, 그러니까 내 시아버님인
신정식 어른의 도움을 받았던 게야.

일본군에 쫓기는 의병들을 피신시켜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다고
밀고가 들어갔는데, 그놈들이 영~ 증거를 찾을 순 없었거든.
증거가 없으니 우리집 어른을 잡아넣을 순 없구.
궁리 끝에 왜놈 대여섯이 말을 타고 찾아와
한밤중에 불을 질렀던 거지.
의병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구 말이야.
(집을 다정하게 둘러보며) 시어머님께 얘기만 들은 나보다
이 집은 그때 일들을 더 잘 기억하겠지.
사람이라면 얼마나 뜨겁고 아팠을까?
그래도 묵묵히 버티며 오늘까지 견뎌왔으니...
생각하면 나는 이 집이 참 가엾고 고마워.

4. 3.1운동과 신형호 이야기

성주 영감 내 속을 송여사가 이렇게 다 짐작을 할 줄은 몰랐네.
나야말로 내 품인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참 가엾고 고마웠지.
그날 집이 불탄 건 이 집 사람들에게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으니까.
1919년 기미년이었어.
신정식 어른의 맏아들 형호 도련님이 열여덟 살쯤 됐던가?
경성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기미년 3월에 독립선언서를 품고 청주로 내려온 거야.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려고 했던 거지.

3월 7일에 벌써 청주 우시장에서 만세시위가 크게 벌어져서
일본 경찰의 신경이 곤두섰는데,
형호 도련님은 3월 9일에 청주농업학교를 다니던 학생들과
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잡혀간 거야.

송여사

등사판으로 만세 시위에서 나눠줄 선언서를 인쇄하다가
체포됐다는데, 그 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돼 옥고를 치렀지.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불이나 절반 넘게 날아가고,
왜놈들은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장손이신 아주버님은 감옥소로 잡혀가고...
가장이신 어른은 편찮으시고..
그때 우리 남편은 아직 10살도 안 된 코흘리개였는데
집안 분위기가 숨이 턱턱 막히게 힘들었다고 해.

성주 영감

형호 도련님은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만에 출소를 했어.
그런데 곧 망명을 결심했지.
왜놈들 등쌀에 국내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마침 작은아버지 되시는 예관 신규식 어른이
먼저 상해로 떠나 있었을 때라
자기도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떠난 거야.

송여사

큰아주버님 만주로 떠나시면서 가세는 더 기울었어.
그럴 수밖에. 망명은 어디 맨몸으루 하나?
선산이며 논밭이며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쓴다고 가져가셨으니
남은 식구들은 호구지책도 어려워졌지.
그러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시어머님 고초가 말이 아니었다는구나.
일본 경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그 많은 재산 다 상해 임정에 보낸 것 아니냐고 욕박지르니,
친척이고 지인이고 발길이 끊어지고.. 빈집같이 적막 하드래.
그러다 내가 시집오고 나서야 겨우 집안에 활기가 돌고
사람 사는 집 같아졌다는구나.

5. 진사댁 셋째 며느리 송숙경 (신형호의 막내 동생 신기호의 처)

성주 영감 그랬지, 우리 송여사가 셋째아들인 기호 도련님에게 시집오던 날,
 모처럼 진사댁 마당에 예전처럼 사람들이 그득~하고,
 웃음꽃도 피고.... 잔치음식도 나눠먹고..
 수심 가득하던 연안 이씨 안방마님도 생기가 나셨드랬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도 궁금하긴 했어.
 아니, 독립운동하는 집안이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그 가시밭길로 송여사는 왜 제 발로 걸어들어온 거야?
 고생문이 흰했을 텐데...

송여사 시집이라고 와 보니, 양반집은 양반집인데..
 안채 하나 남은 기와집 지붕이 이렇게 삐딱닥~해.
 불에 그을린 서까래가 기와 무게를 못 이긴 건지 어쩐 건지.
 혼자 되신 시어머님, 아들 셋 중에
 큰아들은 만주로 독립운동한다고 가버리고..
 작은아들도 남경인지 어디로 뒤탈라 가버리고..
 막내인 셋째 아들이랑 사시는데
 옛날엔 양반 체면이라고 시어머님이 장사도 못 하고..
 농사일도 못 하고.. 남편 될 자리는 지게 질 줄도 몰라.
 글공부 하나 잘한다는데, 그게 어디 호구지책이 되나?

 나는 그래두 처녀 적에 경성사범학교 나와서
 고향인 군산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신랑감 후보가 둘이 들어왔다고.
 하나는 전라도 광주에 부잣집 아들이고,
 하나는 청주에 양반집 아들인데 독립운동하는 집안이라나?
 그러면서 나더러 고르라고 하셔.

그때 부잣집으로 가겠다고 할 것을. (웃음)
부끄러워서 그저 전 몰라요,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그랬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신랑감들을 한 번씩 만나보시고는
여기가 맘에 드셨던 거야.
몰라, 뭐가 맘에 드신 건지..
아무튼 가난한 집이라도 청주 총각이 심지가 곤다,
친정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리로 시집을 왔지.
(고양이를 보고) 인석이 뭐래냥?
없는 집에, 그것도 독립운동하는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만 한 거
후회 안 하나구? 원, 고양이가 별 걸 다 궁금해하네.
너 혹시 고양이 탈을 쓴 사람 아니냐?

후회라... 그런 건 안 해 봤어.
뭐 신랑이 인물이 좋고 잘해주고 그래서가 아니야.
독립운동만 알지. 돈 버는 재주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그저 다 내 팔자려니 한 거지. 후회해봤자 아니겠어?
저기 저 마당 돌 틈에 뿌리내린 잡초를 좀 보렴.
작은 씨앗이 거기서 싹을 틔우는 순간, 후회 같은 걸 할까?
안 해,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지.
작은 꽃송이 하나라도 피우려고 애쓰고 또 애쓸 뿐이지.

이 집만 해도 그래.
이 집이 후회 같은 걸 했을까?
주인 잘 못 만났다고 불평 한 번을 했을까?
이 집은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닥친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견뎌낸 거야.
자기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하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 함께 살아준 거지.

나도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 후회 같은 거 없어.
내 남편의, 내 자식들의,
어쩌면 이 사연 많은 신씨 집안을 위해 지어진 이 집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많이 의지했었고...

성주 영감 그리고 보니 이 집인 나도.. 송여사를 많이 의지했어요.
송여사한테 많이 고마웠고..
아, 어찌나 나를 쓸고 닦는지, 그 야무진 손길 한 번 스칠 때마다
이 마루며, 방 안이며, 기둥이며, 집안 살림들이 다 빛이 났거든.
불에 그을린 지붕 서까래의 상처마저도 낫는 느낌이었대요.
참 고마웠어요, 송여사.
그리고 고마운 만큼 송여사마저 만주로 떠나버렸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지요.

6. 만주 망명살이

송여사 이 집을 두고 만주로 떠날 땐 나도 눈앞이 캄캄했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남편은 ‘대활단’이라고 야학을 만들어서
글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쳤거든.
바로 여기 이 대청마루에서 말이야.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본 형사들의 감시가 심해진 거야.
왜놈들 등쌀에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까지 우리 때문에 시달리게 되니
결국은 이 집을 두고 큰아주버니 계시는 만주 홍안령으로 떠났어.
노부인이 되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식구가 모두 망명살이를 하게 된 거지.

그때가 1937년인지, 38년인지..
아무튼, 한밤중에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길을 떠나는데..
자꾸만 눈물이 솟는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지붕 위에서 우는 건지, 마루 밑에서 우는 건지,
꼭 사람이 우는 것처럼 애절하게 우는데....
나는 그 소리가 꼭, 이 집이 우는 소리 같았어.
그래서 나비 너를 보면 가끔 그날 생각이 나곤 하지.
그때 내가 들은 울음소리는 정말 이 집이 우는 소리였을까?

성주 영감

(눈물 훔치고) 울긴 누가 울었다고..
아, 여기 집이 우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냥 늙은 고양이가 우는 소리였겠지.
그건 그렇고. 만주 가선 송여사, 어떻게 살았어요?
처음엔 나를 두고 모두 떠날 땐 가서 발병이나 나라, 했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안 그랬다우.
모두 무탈하게 지내다 다시 내게로 꼭 돌아오길 바랐지.
그 희망으로 내가 버티고 버텼지.

송여사

만주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고생바가지였지.
쓰러져가는 움막을 짓고 살았으니
두고 온 이 집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어?
큰아주버님이 독립운동 기지 마련한다고
다른 동포들과 농장을 일구고 계셨는데, 그 일을 도우며 살았지.
말이 농사를 짓는 거지 하루하루가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
거기가 만주 흥안동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얼빈에서도 훨씬 북쪽이야.

당시 만주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백계 러시아인들까지
엮히고설켜서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거든.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도 이리저리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고..

그렇게 7,8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해방이 됐다는 거라.
우리 시어머님이, 광복이 됐다는데 돌아가자고,
여기선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하셔서
어머님 먼저 친척들이랑 들어가시게 하고
우리 부부는 조금 더 만주에 남아있었어.
큰아주버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했거든.

큰아주버님, 그러니까 신형호 어른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일본군대로 강제로 징집당해 갔다 포로가 된 조선 청년들을
중국 수용소에서 빼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셨거든.
근데, 그렇게 매일 수용소를 드나드시다가
그만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리신 거야.
우리집 양반이 형님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고
내가 수혈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지.
광복된 조국 땅에 발 한 번 딛지 못하시고 말이야.

나중에 우리 부부도 귀국했지만
차마 시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우리집 양반이 그랬지.
“어머니, 형님은 만주에서 할 일이 남아 함께 못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저 기가 막힌 듯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7. 광복 후의 이야기

성주 영감 그때 새카맣게 타버린 노마님 속을 뉘라서 다 짐작할 수 있겠어?
 큰아들 형호 도련님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셨지.
 기다리는 아드님이 만주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말이야.
 그래도 식구들한테 끝내 모르는 척하셨어.
 큰아들 죽은 걸 모르는 척,
 만주에서 잘살고 있겠거니 믿고 있는 척,
 멍든 가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지.
 그 깊은 한숨 소리를, 이 집인 나는 내내 듣고 있었지만 말이야.

송여사 그렇게 큰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시름시름 시어머님의 혼불이(생명) 꺼져갔단다.
 어느 날인지 서울 살던 내가 어른을 뵈러 왔더니
 내 손을 잡고 그러시는 거야.
 “셋째야, 이 집은 어쩐지 니가 와서 살 거 같구나.”라고.
 나중에 보니 우리 시어머님 말이 맞았지 뭐야.
 지금 내가, 그때 어머니처럼 혼자서 이 집을 지키고 있으니...

성주 영감 송여사네 서울 사는 동안, 마님 혼자서 많이 적적하셨지.
 그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잖우?

송여사 애들 키우고 정신없이 사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지.
 이 집 남자들 독립운동할 때는 아주 열심히고 유능하지만
 돈 버는 일은 영 쩌병이거든.
 일본놈과 싸우다 해방됐는데, 사는 건 또 다른 전쟁이더라구.
 논밭이며 재산은 독립운동으로 탕진한 뒤니

하는 수 없이 내 친절 도움을 받느라 서울에 자릴 잡은 거지.
그때 나는 행상에 날품을 팔다가 어찌어찌 소개를 받고
예전 경성사범대학 나온 실력을 살려 일본어 번역일을 시작했어.
밥 먹듯이 밤을 새웠지.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밤을 샌 덕에 애들 학교도 보내고..
술 좋아하는 남편 용돈도 주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나왔지.
그러느라 이 커피 맛을 알게 된 거야.
몰려오는 잠을 깨우느라고.
지금 내가 아흔 살 나이에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다들 건강에 안 좋다고 난리지만 나한테 이걸 그냥 커피가 아니야.
쓰고, 달고, 시고, 짭고, 뜨겁고..
내가 경험한 온갖 인생의 맛이 들어 있거든.
그래서 매일 요 봉지 커피 한두 잔을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단다.

성주 영감

그 참, 커핀지 코핀지 그게 어떤 맛인지 나도 한잔 마셔보고 싶네.
인생이란 게 사람한테만 있나? 집한테도 있는 건데 말야.
송여사네가 서울살이하는 동안
여기서 나는 날마다 조금씩 늙아가고 있었으니,
내 마실 커피맛은 아주 쓰고 짭은 맛이겠구먼.
노마님 돌아가신 후로, 난 오래도록 빈집으로 있었으니까.

세월이 흘러 내가 ‘진사댁’이라 불렸던 걸 기억 못 하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두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했어.
그만큼 내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
지붕은 무너져가지, 마당에 잡초는 무성하지, 문짝은 덜렁거리지..
불에 그을린 서까래는 언제 부러질지 모르게 위태로웠으니
그럴 만도 했지. 나도 그땐 이렇게 죽는구나,
집으로 태어난 생애가 이렇게 사라져가는구나... 각오를 했었어.

그런데, 머리가 하얘진 송여사랑 기호 도련님 부부가
나를 다시 찾아왔지.

송여사

몰라, 왜 내내 여기가, 이 집이 생각났는지.
우리 시어머님, 큰아들 앞세우시고 속이 다 문드러지셨는데..
나도 말년에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
아직 앞날 창창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
그 기막힌 일을 당하고서 시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지.
이 집에 혼자 계시면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셨던 그 어른이 말이야.
언젠가 ‘이 집은 셋째 니가 와서 살 거 같다’ 그러셨던 게 생각나고..

그때가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는데..
다짜고짜 남편에게 선포했지.
서울을 떠나 인차리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영감은 같이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라구.
남편은 선선히 그러라고 했어.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 바로는 못 따라와도 곧 내려오겠다면서.
내 나이가 그때 벌써 80이 넘었으니
늙은 마누라 고집을 꺾을 수 없겠다 싶었겠지.

성주 영감

에그, 거, 송여사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해요.
평생 무뚝뚝하고 고생만 시킨 남편이긴 해두
송여사와 이 집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천지에 기호 도련님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송여사 내려오기 몇 해 전부터
기호 도련님이 혼자서 관공서를 쫓아다녔잖아요.
만주서 돌아가신 큰형님, 그러니까 신형호 서방님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리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집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좀 발품을 팔고 뛰어다녔어요? 그걸 잘 알면서.

송여사 하긴 우리 영감이 죽기 전에 나한테 제일 잘해준 일이긴 하지.
이 집,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게 백방으로 뛰어다닌 거 말이야.
그 덕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어른들께서 보살펴주신 덕인지,
나중에 정말로 이 집이 문화재가 되었지.
영감 떠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고맙단 말을 못 했네.
(허공을 휘 보고) 듣고 있수? 고마워요, 영감.
무너져가던 이 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말년에 독차지하고 살면서 호사를 누려요.

성주 영감 나도 고마워요, 다 무너져가던 나를 번듯하게 다시 고쳐주고
문화재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내 마지막 주인 송여사의 말년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8. 에필로그 – 장한 집, 장한 사람들

송여사 영감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집에서 그런 얘길 했단다.
저 대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던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모진 세월이었다고.
내 말을 듣고 영감이 말했다.
그게 다 저 대문 밖의 험하고 모진 것들을 피해
잠시라도 쉴 수 있었던 이 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게 아니냐고.

이제 영감은 저 뒷산에 묻히고 나만 남아서
나처럼 늙은 요,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고양이 녀석이나 붙들고
별 소릴 다 하고 있네.
(고양이를 향해) 왜, 이제 재미없어 마실이라도 가려구 하냐?
오냥~, 잘 갔다가 또 오려무냥~ (웃음 뒤 쓸쓸한 혼잣말)
이 집은 여기서 언제라도 너를 기다릴 거란다.
내가 저기 멀리, 영감 있는 세상으로 떠난 뒤에도 말이야.

성주 영감 무슨 그런 말을 하셔,
송여사마저 떠나면 내 품엔 이제 누가 산다구?
오래오래 이 집이랑, 그러니까 나랑 함께 늙어가십시다.

송여사, 일어나서 마른길레로 대청마루 기둥을 찬찬히 쓰다듬듯이 닦는다.
희망가 노래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성주 영감 아, 송여사 없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매일같이 쓸어주고 닦아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냐구?

송여사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여기 있을 거야. 그래야하구 말구.
여기 살았던 신씨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여기에 오래오래 있어야지.
누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다리를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고
살다 보면 죽을 것처럼 힘든 일도 다 지나간다고..
지나가는 바람의 말인양 옛이야길 들려줘야지.
그런 집으로 오래오래 잘 살아가야지, 암.
난 이제 그 희망이면 족해. 더 바랄 게 없지.
집아, 장한 집아, 안채만 남은 채로 이 풍진 세상에서
오래 우릴 지켜준 옛집아, 그동안 참 고마웠구나.

송여사, 성주 영감이 있는 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이며 인사한다.

성주 영감 나도... 장하고 장한.. 당신들의 집이어서 참 고마웠소.
이 풍진 세상에 집으로 나서 나도.. 그거 하나면 족하오.

성주 영감과 송여사, 서로를 향해 깊이 허리 숙이며 인사한다.

희망가 노래 높아진다. (끝) 

05. 충북학연구소 소식

■ 2025년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공동주관 및 세션 참가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충북학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충청북도의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주관하여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청북도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외 학계와 소통하며 학문적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충북학연구소는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으로 제14세션 ‘충북지역단체 자유 세션’에 참여했다. 7월 4일(금)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성보현 교수가 “호수는 충북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호수관광 정책을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호수·가람 광역 관광권’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호수가 대부분 농업용 인공저수지라는 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자연성과 문화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위 변동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에는 김양식 전 청주대학교 교수와 임승빈 청주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여 충북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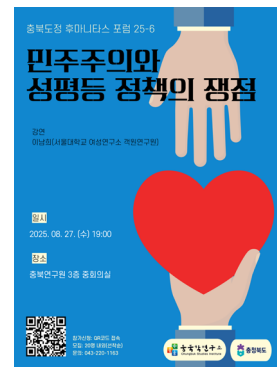
■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25-5~7 개최

충북학연구소는 충청북도의 정책 현안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을 매월 1회에서 2회 개최하고 있다.



▷ 포럼 25-5에서는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우리 수학교육 괜찮은가요?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 본 수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대 그리스 수학의 본질과 교육 철학을 토대로 한국 수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단순 계산 중심 교육을 넘어 사고력과 교양을 기르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포럼 25-6에서는 이남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이 「민주주의와 성평등 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남희 연구원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으며 여성가족부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또한 일자리, 돌봄, 저출생, 국방,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 의제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래 지향적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 포럼 25-7에서는 김태옥 충북대학교 러시아어문문화학과 교수가 「러시아 문화 및 국내 거주 러시아어권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낯선 러시아를 살펴보고 국내 거주 러시아어권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한·러 관계,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러시아어권 이주민의 삶과 이주 실태를 살피며 다문화 사회 속에서 충북이 지향할 공존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운영

충북학연구소는 도민이 충청북도의 역사, 지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는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병행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길 위의 독서 史談 - 박상일 교수와 함께하는 역사기행”이라는 이름으로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강의를 맡은 박상일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전 청주대학교 교수)은 충청북도의 역사와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다. 아카데미는 회차마다 약 30명의 수강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9월에는 세 번의 강의와 한 번의 답사를 진행했다.



▷ 제1강 「까치내의 들꽃 홀씨 되어」

청주의 역사를 살펴보며 백제 상당현과 신라 서원소경의 설치, 고려·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 변천을 살펴보았다.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문헌을 보며 청주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백제 고분군과 직지 등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충북의 문화유산을 함께 공부했다.

▷ 제2강 「성벽에 새긴 역사-청주와 청주읍성-」

청주의 하천과 다리,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심천과 남석교의 변천, 조선 시대 읍성 축조와 청주읍성 남문의 기능과 의미, 산당산성 등 충북 지역 성곽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제3강 「조선의 악성, 난계를 찾아서」 *답사

가학루, 당곡리 십이장신당,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을 답사하며 영동군의 역사·문화 공간을 살펴보았다. 가학루에서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누정의 건축적 특징을 배우며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느껴보았다. 당곡리 십이장신당에서는 관우 장군과 적토마를 모신 사당을 보며 민간신앙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관람하며 국악의 기틀을 마련한 난계 박연의 업적을 되새겼고 국악의 가치가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제4강 「깨어진 금구와 직지의 부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을 공부했다. 흥덕사터 관련 유물을 보고 직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직지가 프랑스로 전해진 경위와 1972년 세계에 재조명된 과정,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이어진 국제적 가치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론 강의와 청주, 괴산, 보은, 충주 등 현장 답사로 충북도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고 깊이 있게,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의 자세한 소식은 충북연구원 및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3-220-1163

2025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길 위의 독서 史談

박상일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충청북도의 역사, 자연, 문화를
강의실과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재미있게 공부하는
충북학연구소의 인문학 아카데미

모집기간 8월 20일(수)-8월 29일(금) 18:00

모집인원 30명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 QR 코드 접속
- 전화 접수(043-220-1163)

* 각 차시별 추가모집은 별도 공지

세부 일정

* 본 강좌는 강의와 답사를 병행합니다.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	강의 제목	날짜	시간	장소	비고
제1강	까지내의 돌꽃 물씨 되어	9. 4.	10:00~12:00	충북연구원 3층 중회의실	강의, 토론
제2강	심벽에 세긴 역사	9. 11.	10:00~12:00	충북연구원 3층 중회의실	강의, 토론
제3강	조선의 역성, 난계를 찾아서	9. 18.	10:00~17:00	영동군 (국악엑스포)	답사, 강의
제4강	깨어진 금구와 지지의 부활	9. 25.	10:00~12:00	충북연구원 3층 중회의실	강의, 토론
제5강	연다호길,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	10. 16.	10:00~12:00	충북연구원 3층 중회의실	강의, 토론
제6강	청주읍성 돌아 돌다리까지	10. 30.	10:00~14:00	청주시	답사, 강의
제7강	계산리 오층석탑 찍고 화강동으로	11. 6.	10:00~17:00	청주시 가덕면 괴산군 흥명면	답사, 강의
제8강	레이크파크, 그곳에도 역사가	11. 13.	10:00~17:00	청주시 문의면, 오송읍, 오송읍	답사, 강의
제9강	난공불락의 삼년산성 넘어 법주사로	11. 20.	10:00~17:00	보은군	답사, 강의
제10강	각각의 현장에 판 중원문화	11. 27.	10:00~17:00	충주시	답사, 강의

강사



박상일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전 청주대학교 교수
전 청주문화원장



충북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3

홈페이지 <http://csi.cri.re.kr>